

분유·치즈... 미국산 축산물 몰려온다

농촌경제연 '한·미 FTA 발효후 농축산물 교역' 보고서 유제품 최고 10배 ... 쇠고기·돼지고기 등 2배 늘어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유제품, 육류, 과일 등을 중심으로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많이 늘었다.

23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관원)의 '한·미 FTA 발효 4년, 농축산물 교역 변화와 과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미국산 축산물 수입액을 FTA 발효 전 평년(2007~2011년)과 비교하면 8억2300만달러에서 17억6100만달러로 2배 이상(114%) 증가했다.

닭고기를 제외한 쇠고기, 돼지고기, 치즈, 분유 수입액이 모두 관세율 인하, 국내 생산량 감소와 수요 증가 등으로 늘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축산물 가운데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진 품목은 분유와 치즈 등 유제품이다.

제과·제빵과 유아용품 원료로 쓰이는 탈지분유와 전지분유를 통틀어 FTA 발효 전 평년 미국산 분유 수입액은 90만달러, 수입량은 300t였다.

분유 수입실적은 작년에 수입액 1280만달러, 수입량 5700t으로 10배 넘게 뛰었다.

같은 기간 치즈 수입액과 수입량도 각각 5600만달러, 1만3000t에서 2억5100만달러, 5만5000t으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12년 미국 광우병 발생에 따른 수입전 전환 등으로 발효 전보다 10.1% 감소했으나 수입단가 상승으로 수입액은 26.5% 증가했다.

돼지고기는 국내 수요 증가로 수입량은 53.6%, 수입액은 102.4% 늘었다. 닭고기는 미국 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이 금지돼 수입량과 수입액이 각각 72.7%, 71.1% 감소했다.

최근 국내 수요가 많은 수입 과일도 미국산이 많이 들어왔다. 작년 미국산

과일 수입액은 4억4200만달러로 발효 전 평년(2억1600만달러)보다 104.2% 상승했다.

이 기간 오렌지(48.5%), 체리(300.5%), 석류(82.4%), 포도(97.8%), 레몬(336.7%), 자몽(182.8%) 등 주요 미국산 과일 수입액이 모두 늘었다.

관세율 인하에 따른 미국산 육류와 신선과일의 평균 수입가격 하락폭은 각각 10.5%, 21.3%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FTA 발효 전인 평년(59억6000달러)보다 17.7% 증가한 70억1000달러였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한·미 FTA 이행 1년차인 2012년에 66억1000달러로 늘었다가 2013년 59억6000달러, 2014년 78억1000달러로 증감을 반복했다.

미국으로 수출한 한국 농축산물 금액은 3억9200만달러에서 6억1900만달러로 58.1% 증가했다. 임산물(109.9%), 가공식품(62.5%), 축산물(62.2%) 등의 수입액 증가율이 높았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국내산 고사리 안심하고 드세요”



농관원 '중금속 피담'에 전국 전통시장 실태 조사 납·카드뮴 함유량 허용기준치 초과 안해 적합

국내산 고사리 안심하고 드세요. '중금속 고사리 피담'이 퍼지고 있어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국산 고사리는 대부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22일 “국내산 고사리의 중금속 오염 실태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최근 일부 언론매체에서 수입 고사리의 중금속 오염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내산 고사리의 중금속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7

일부터 21일까지 전국 9개 시도의 전통시장 등에서 국내산 고사리 20점을 수거해 분석했다.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된 납, 카드뮴의 함유량 조사에서 분석 대상 시료 20점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농관원은 밝혔다.

조사가 이뤄진 국내산 고사리 20점의 평균 납 검출량은 허용기준의 5분의 1 수준(평균 0.018mg/kg)이었고, 카드뮴은 2분의 1 수준(평균 0.026mg/kg)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중금속 잔류허용 기준은 납의 경우 0.1mg/kg 이하, 카드뮴은 0.05

mg/kg 이하다.

농관원 이재욱 원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1400건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사리 피담이 퍼지고 있는 것은 중국산 고사리에서 카드뮴 등이 검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의 한 농산물 수입 업체가 수입·판매한 건조고사리에서 카드뮴이 기준(0.05mg/kg)을 초과(0.12mg/kg) 검출돼 회수·폐기조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깨끗한 물 보존은 일자리 창출 밑바탕”

농어촌공사 물의 날 기념식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는 지난 22일 나주시 본사에서 공사 임직원과 신정훈 국회의원, 이낙연 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유관기관 전문가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했다.

〈사진〉 이상무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중요한 물을 확보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 일은 물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밑바탕”이라며 “공사는 농어촌용수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개발도상국 등의 농업생산기반 관련 물 산업 시장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재권 한국농공학회 회장은 “물과 일자리”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에서 “최근 물 산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유역개발, 물 공



급의 안정성 확보 등 물 순환의 전 과정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농어촌용수 부문에서도 국내 물 산업 분야와 연계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35곳 적발

농관원 전남지원

농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김정빈)은 23일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 9만4000개소 중 22일 현재 6203개소를 점검해 이중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235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한 업체는 146개소로 62%이며,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89개소로 38%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 60건, 돼지고기 53건, 쇠고기 36건, 배추 9건, 닭고기 5건 등 163건이 적발되어 69.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수입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

하여 판매한 14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처분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89개소는 142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 농관원 관계자는 “올 1분기 단속 상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추후에도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예방차원의 지도·홍보와 더불어 수요가 많고 원산지 위반이 잦은 품목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독거노인 노후주택·마을시설 전기수리 봉사

농어촌공사 마중물 봉사회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성광)는 22일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일원에서 독거노인 노후주택 및 마을 공동시설 등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수리하며 'KRC 희망나눔마 마중물 봉사회'를 했

다.

'마중물 봉사회'는 전남지역본부 기증 기술부 기계, 전기, 건축 등 전문기술 인력을 주축 결성되어 지난 2006년부터 매년 4회 이상 활동해 오고 있다. 농어촌지역 독거노인 노후 주택 등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전기시설 점검·수리 및 전기설

비, 등등 교체 등의 봉사를 하고 있다.

조성광 전남지역본부장은 “앞으로도 주변의 소외 계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4면 발행·호남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전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지난 22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직원이 담양군 고서면 원강리 독거노인 노후주택에서 전기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제공>



박상규 보도본부 부본부장



김설혜 보도본부 기자

채널A 종합뉴스

가장 빨리,
매일 저녁 **7시 20분**에
뵙겠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꿈을담는 캔버스 **채널A**

www.ichannelA.com